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신앙고백 Confession	다같이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말씀 Sermon	오병이어, 오해와 이해 요한복음 6:1-15 곽형일 목사
결단의 시간 Dedication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곽형일 목사

3부: 오후 1:30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곽형일 목사

- 새 예배당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0015 Main St, Fairfax, VA, 22031
1) 교회 Special Use Permit - 신청 후 주변 주민들에게 편지 발송 예정
2) 교회 론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3) 교회 Building Permit - 적절한 교회 설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감사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
1) 새일을 경험하신 간증과 남은 새일에 대한 기도제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주일 예배는 전 성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 감사주일 서리집사 임직 및 세족식
1) 그동안 서리집사였던 분들은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서리 집사입니다
2) 신임집사- 김지혜, 송무경, 박설형, 정우재, 주아름
3) 세족식 후 신임 임직자들에게 줄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지난주 헌금 (Last Week's Offerings)

주정 헌금	1942	건축 헌금	400
십일조	1352	선교 지정	90
감사헌금	460		
			총액
			4,244

◆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
1. 왜 유월절에 행하셨나?

2. 왜 오병이어를 필요로 하셨는가?

3. 왜 남은 떡을 모으셨는가?

● 썰 그룹 나눔 주제 Questions for Cell Group Sharing

1. 오병이어와도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실한 상황이 있습니까?
2.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나만의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3. 예수님께서 굳이 남은 떡을 거두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12광주리일까요?
4.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 때는 언제인가요?
5. 멕시코 에나켄의 이야기 속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까?

● 예배 및 모임 안내 (Services and Meetings)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화-금 새벽기도 (온라인)	오전 5: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기도	오전 6: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YM, EM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토요 여성 성경공부	오전 9:00	새가족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00

● 후원선교사 (Supporting Missionaries)

Missionary	Country	Missionary	Country
고동훈/김홍희	Israel	김성화/진옥경	Dominica Republic
성명구/황은주	Mexico	장순희	Nepal
정은희	South Sudan	성화영	Sri Lanka
김광호	NK Church	강태호	Japan
나운주	Washington DC	이흥구	California

● 멕시코 애니깁



● 목회 편지 - 나라 없는 자들의 눈물과 피와 땀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 칸쿤, 아이러니 하게도 칸쿤이 위치한 멕시코 유카탄 반도는 한인들의 눈물 어린 멕시코 이민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1905년 4월 초, 한인 이민자 1,033명은 한 배에 몸을 싣고 제물포항을 떠나 5월 중순 경,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살리나 크루즈 항에 도착합니다. 당시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에는 일본인 이민자들이 많아 거대한 일본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주 정부는 점점 거대해지는 일본인 이민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에서도 노동이민을 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이민사회는 일본정부에 조선인의 하와이 이민을 막아달라고 탄원했고, 일본정부는 조선의 신문에 광고를 내어 멕시코 이민을 위한 현혹 광고를 냈습니다. 나라가 쇠퇴해가고 가난이 극에 달했기에, 각계 각층에서 이민선에 올라 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건 용설란 농장의 혹독한 노예 노동이었습니다. 용설란이란 용의 혀처럼 생긴 난초란 뜻에서 지어진 말로 애네구엔(Heneguen)이란 식물을 뜻합니다. 이것을 한국식으로 잘못 발음하여 생겨난 말이 애니깁이란 단어입니다. 이후 애니깁은 멕시코 이민자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애니깁은 뜨거운 피와 땀에서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으며, 수시로 채찍에 맞아 몸이 피범벅이 되어야 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오고 싶었으나 한일 합방으로 인해 돌아올 나라가 없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물포에서 떠나온 날을 후회하며, 술만 취하면 제물포, 제물포를 외쳤습니다. 그곳에는 제물포라고 하는 이름의 술집이 세워졌습니다.

그토록 눈물과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벌어들인 돈을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보냈습니다. 멕시코 노예였던 그들이 독립 활동에 대한 가장 유력한 자금줄이었습니다. 훗날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나라가 쇠약했기에 노예가 되었고, 나라가 망했기에 갈 곳이 없었던 그들에게 나라가 없는 것은 슬픔이요, 아픔이요,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과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돈을 기꺼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나라를 로마제국에 빼앗긴 채, 나라 잃은 슬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제국을 종결하고 유대인들이 왕이 될 나라를 세워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 있다가 쇠하고 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흥해도 죽으면 덧없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살면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된 것이었습니다. 만사를 내려 주시는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만사로 예표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세상에 세워질 유대인들의 나라만을 열망하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의 자리에 앉히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피해 산으로 가버리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로 들어오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과 같은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시작되는 나라이지만, 큰 역사로 확장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쇠하지 않는 영광을 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도 나라 잃은 자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



생명샘 교회
Living Spring Church



2024 표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spring forth

이사야 (Isaiah 43:19)

EM: Mark Lee 목사 / 장애우사역: 박경숙 전도사

Youth: Isaac & Martin Lin

제자훈련: 허용범 전도사 / 상담: 전에스티 전도사

아동부: 민경은 사모 / 유년부: 배민희 전도사

영아부: 배미자 권사 / 원로: 임종길 목사

담임: 곽형일 목사

7200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 571.839.3058

LivingSpringVirginia@gmail.com

www.LivingSpring.net